

2026.8.16

연중 제 20주일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29번> 찬미하여라	<폴더 14번> 임마누엘	<폴더 19번> 나의 의지를 주님께	<폴더 12번> 하늘의 태양은

제 1독서 | 이사야서 56,1.6-7

화답송 |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
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
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독서 | 로마서 11,13-15. 2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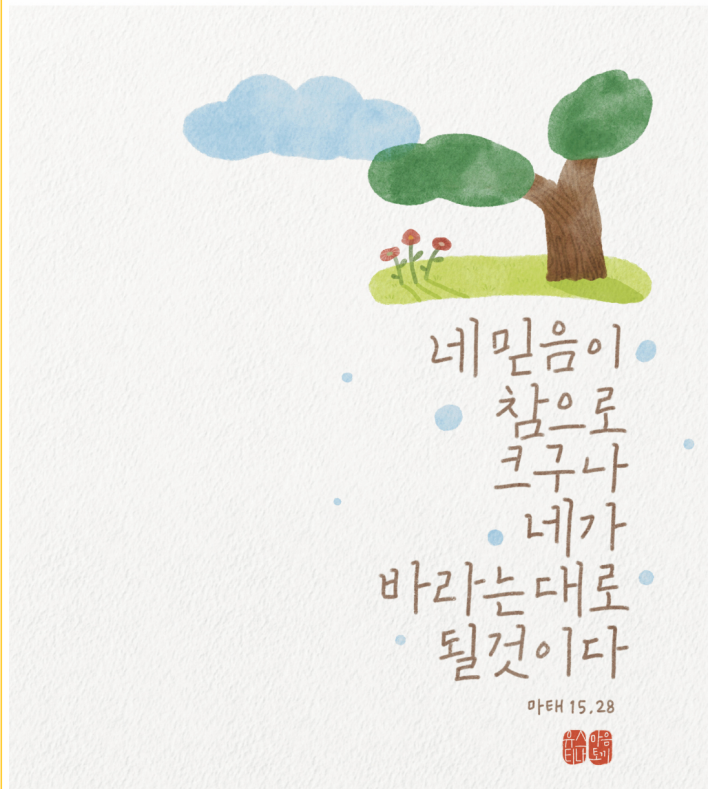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
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15,21-28



나의 '작업도' '크게' 해주시는 주님 '박경희(유스티나)' 주

<오늘의 독서 및 복음>

제 1독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

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제 2독서

형제 여러분,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
니다. 나는 이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붙이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
서입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
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
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
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
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
렀다. 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
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
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
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
고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
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오늘의 시(詩)

개안(開眼)

- 박목월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神)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神)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至福)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神)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神)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철학자 에디트 슈타인으로 더 잘 알려진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1891~1942)는 유대인이었고, 봉쇄 수녀원인 독일 쾰른 카르멜 수녀회의 수녀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고,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녀를 성인품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시성을 통해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녀의 성덕을 기렸을 뿐 아니라 아우슈비츠가 상징하는 유대인들의 슬픈 운명을 기억하고, 유럽의 새로운 영성적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1891년 10월 12일, 독일 문화권이었던 폴란드 브로츠와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에디트 슈타인은 현상학의 창시자인 에드문트 후설의 제자로, 철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현상학의 중요인물로 철학사에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신앙을 잃기도 했지만, 타협 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적 탐구는 그녀에게 동시에 신을 향한 여정이 됩니다. 동료 철학자의 집에서 접하게 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은 그녀를 가톨릭 신앙으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1922년 1월 1일 가톨릭 신앙에 귀의한 후, 에디트 슈타인에게 있어 이제 현상학적 탐구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교 철학에 대한 연구와 만나게 하고, 신앙적, 신비적 구도의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마침내 1933년 쾰른의 카르멜 수녀원에 입회하여 1934년에는 종신서원을 합니다. 유대인 박해가 본격화되자 1938년 네덜란드의 수녀원으로 피신하지만, 결국 1942년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후송된 지 일주일 만에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에디트 슈타인은 아우슈비츠의 슬픔과 고통을 상징

하는 인물이자, 이러한 비극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는 시대의 폭력과 어둠의 상징이며,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를 묻는 이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역대 교황들이 아우슈비츠를 방문하는 것은 이러한 엄중한 의미를 교회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역시 폴란드에서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있었을 때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방문하여 침묵 중에 기도하였습니다. 아우슈비츠는 많은 이들에게 '신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디트 슈타인처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느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음을 증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중략)

전쟁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희망을 갈구하는 아름다운 합창곡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듯합니다. 1980년생인 노르웨이의 젊은 작곡가 김 안드레 아르네센이 작곡한 <Even when he is silent>입니다. 참신한 멜로디와 아름다운 화성이 담긴 곡이지만, 이 곡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가사 때문입니다. 작곡가 아르네센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쾰른의 한 지하실 창고에 적혀 있던 기도문에 이 곡을 붙였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숨어 있던 곳으로, 이 기도문은 곧 많은 이에게 알려졌고 비극의 현장인 바르샤바의 게토에서도 발견됩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신앙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I believe in God even when He is silent.

아르네센의 곡을 세인트올라프대학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으며 슬픔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의 침묵' 속에서도 그들이 잃지 않았던 신앙과 희망을 경외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합창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St. Olaf Choir -
"Even When He Is Silent"



공지 사항

1. 간식 나눔 안내

오늘 미사(8월 16일) 후에는 교육관에서 간식 나눔이 있습니다.

2. 2025/26 회계연도 - 본당 재정보고

* 모든 금액은 캔버라 교구의 Catholic Development Fund에서 예치되어 있으며, 캔버라 대교구의 재정 시스템과 모니터링 아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입>

봉헌금	\$ 12,944.05
교무금	\$ 29,573.38
바자회	\$ 1,017.50
김치 판매 이익금	\$ 230
은행이자	\$ 2,790.04
합계	\$ 46,554.97

<지출>

고정 지출	성당 사용료	\$ 8,400
	본당 사제 성무활동비	\$ 15,910
변동 지출	식사, 간식 나눔 및 행사비	\$ 17,209.24
	교육 지원 (예비자, 첫영성체, 도서 지원 등)	\$ 3,535.75
	기타	\$ 1,132.22
	합계	\$ 46,187.21

<결산>

전년도 이월금	\$ 110,179.78
수입	\$ 46,554.97
지출	\$ 46,187.21
현재 잔액	\$ 110,547.54

| 공동체 기도 지향

*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8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 최원미 클라라 (8.11) * 이민정 글라라 (8.11)
- * 임채숙 마리아 (8.15) * 강하니 스텔라 (8.15)
- * 최은희 헬레나 (8.18) * 정루이 루이스 (8.25)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 <도시 복음화>

익명성과 고독이 만연한 대도시에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발견하여 복음 선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봉헌금 & 교무금 | (8월 8일 ~ 8월 14일)

봉헌금	\$ 182			
교무금	\$ 310			
구민식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정은영	주정자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8월 공동체 실천 |

세상을 떠난 이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주모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바치기.